

25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615.81 (-16.26)	711.26 (-8.96)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2.612 (+0.008)	1469.35 (+1.65)



정의선, 美 ‘31조 통큰투자’… 트럼프 “현대차 무관세”

현대차그룹 美 관세장벽 정면돌파
올부터 2028년까지 210억 弗 투자
전기차·로보틱스 등 미래산업 집중
HMGMA 생산능력 50만대로 확대



현대차그룹은 이번 투자를 통해 미국 제조업 재건 등 미국 행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기회를 확대해 미국에서 톱티어 기업으로서 위상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사진)이 미국에 210억달러(약 31조원) 규모의 ‘통 큰 투자’를 진행하며 미래 먹거리 확보와 ‘트럼프발’ 관세장벽 정면돌파에 나섰다. <관련기사 3편>

정의선 회장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행사에 참석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4년동안 미국에서 자동차, 부품 및 물류, 철강, 미래 산업 등의 분야에 210억 달러(약 30조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화답해 “현대(차)는 관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연방 의전 서열 3위인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루이지애나), 스티븐 스컬리스 하원 원내총무,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 등이 참석했다.

현대차그룹은 준공식을 앞둔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생산능력을 30만대에서 향후 50만대로 확대하는 한편 루이지애나주에 전기로 일관 제철소 건설을 추진한다. 로보틱스, AI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에너지 관련 인프라 투자도 시행할 계획이다.

미국은 현대차그룹의 최대 해외 투자 국가이자 사업 국가이며, 미래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이다.

무엇보다 다각적인 미국 현지 사업 기반 확대를 통해 모빌리티를 비롯한 미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신뢰도를 높여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한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현대차그룹의 투자로 한국과 미국의 경제 활성화가 촉진되고, 양국간의 경제 협력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현대차는 정말로 위대한 회사”라며 “현대차는 미국에서 철강과 자동차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 결과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날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 발표는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4월 2일 직전에 이뤄졌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정 회장 등에게 “만약 여러분들이 원하는 허가를 얻는데 어떠한 것이든 어려움을 겪는다면 나를 찾아오라. 당신들을 위해 해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는 국내 연관 산업의 성장은 물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현대차그룹의 해외 투자는 해외 현지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글로벌 수요를 증가시켰으며 그 결과 국내 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왔다.

더불어 현대차그룹은 국내에 올해 역



메트로신문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성료

김영의 내일희망경제연구소 소장이 2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메트로미디어 주최로 열린 ‘2025 100세플러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강연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대 최대 규모인 연간 24조3000억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의 국내 및 미국 대규모 투자는 국내의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인 도전과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류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하겠다는 의지”라며 “과감한 투자와 핵심 기술 내재화, 국내외 톱티어 기업들과의 전략적 협력 등을 통해 미래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소비심리 4개월 연속 ‘비관적’

한은, 3월 소비자심리지수 93.4
6개 지표 중 대부분 하락세 보여
수도권 거래 늘어 집값은 전망 ↑

소비자심리지수가 4개월 연속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가 회복되는 듯했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4로 한 달 전과 비교해 1.8포인트(p) 하락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소비자심리지수는 2003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의 기준값을 100으로 두고 이보다 높으면 낙관적, 이보다 낮으면 비관적으로 해석한다.

이달 소비자 지수에 포함하는 6개 지수는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다. 소비자는 과거 6개월 간 현재생활형편(87)은 비슷하다고 느꼈지만 앞으로 6개월 후 생활 형편은 전담 평가한 것보다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가계수입전망(96)은 1p, 소비지출전망은 104로 2p 하락했다. 소비자는 앞으로 6개월 뒤 가계수입이 좋아지지 않으리라고 예상했다. 지출도 줄어들 가능

성은 있지만, 크게 줄어들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소비자의 현재경기판단은 55로 6개월 전과 비교해 여전히 비관적이라고 응답했다. 앞으로 6개월 후를 전망하는 향후경기전망(70)도 3p 하락해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도 소비자는 지난 6개월 전과 비교해 현재가계부채(100)가 늘었고, 앞으로 6개월간 가계부채(99)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가격전망(105)은 한 달 새 6p가 뛰었다. 이해영 경제통계1국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주택가격 전망은 부동산 경기 시장상황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라며 “이달 주택 매매 거래량이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늘면서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향후 1년 간 기대하는 물가수준을 의미하는 기대인플레이션은 2~3%대의 응답 비중이 가장 많았다. 3년 후와 5년 후의 기대인플레이션도 2~3%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은 농·축·수산물 가격이 50.5%로 가장 많았고, 공공요금(48.8%), 공업제품(31.2%) 순이었다. 한 달 전과 비교해 공업 제품(+7.3%p)과 농축수산물(+3.8%p)의 응답비중은 증가했지만, 석유류제품(-17.1%) 감소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내년 예산 700조 넘는다… 민생·내수에 방점

2026 예산안 편성·운용 계획
내수진작·첨단산업 투자로 경기 부양
지역소멸 대응 등 지속가능성 확보



권한대행 주재(사진)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역대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가 대내외에 확산한 불확실성에 대응한 민생회복·내수진작 등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비롯해 인구·지역소멸위기에서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 투자한다. 또 그간 당장 눈앞에 닥친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뒀던 반면, 앞으로는 건전재정의 미래 지속가능성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한덕수 대통령

내년 예산안은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산업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미래 ▲국민안전 확보, 굳건한 외교·안보 등 4대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내수진

작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청년 등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자립기반 강화, 주택·안전 인프라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지원한다.

산업경쟁력 강화 뒷받침을 위해서는 AI·혁신생태계 조성,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주력산업 지원, 선도형 R&D 전환 정책, 수출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위기 대비, 지역소멸위기 극복, 무탄소 에너지 등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신산업·첨단산업 미래인재 양성 등 경제·사회체질 개선을 추진한다.

<3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

메트로 한줄뉴스



▲尹측 김계리 변호사, ‘국회의원 총사퇴’ 이인주에 “옳은말… 드디어 계몽?” /사진 뉴스사
▲ ‘민주당 출신’ 총암고 이사장, “尹 부끄럽다” 발언에… 동문회장단 “사퇴하라”

▲ 한 대법 “헌법재판소 결정, 어떤 결과로 귀결되든 존중해야”
▲ 김용민 “윤 파면시 총선·대선 같이 치르는 것 가능할 수도”

▲ 박용진, 연금개혁 ‘개고기’ 빚던 이준석에 “무책임한 정치선동”
▲ 민주당 ‘강동구 싱크홀 사고’에 “비극 반복 않도록 예방조치 법적 토대 만들 것”